

「청산별곡」의 내용과 상징성

김 쾌 덕*

목 차

- | | |
|---------------|-----------------|
| I. 서 론 | 2. 비극적 상황과 절대고독 |
| II. 본 론 | 3. 현실 인식과 술 |
| 1. '새'와 시대 상황 | III. 결 론 |

I. 서 론

「청산별곡」은 고려 속가 가운데서 고려 시대의 사회상과 더불어 고려 사람들의 생활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구성에 있어서는 논리성이 두드러지며, 내용 또한 고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음악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잘 배려되어 있음도 이 작품의 특징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노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요 목표로 삼으려는 것은 이 노래의 내용파악이다. 여기에서는 이 노래의 상징성 문제도 아울러 살펴질 것이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여 온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 기대하는 중심과제는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작품의 모든 구조는 주제 부각과 그 표출에 기여하도록 짜여져 있다. 「청산별곡」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의 한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이 노래의 각 연들이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의미

* 수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단락을 형성하여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당시 사회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조목 조목 따져보려 한다.

범박하게 말해 문학은 사회의 반영이며, 나아가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을 표현한다. 또 시는 역사와 사회의 참다운 실체인 언어로 만들어진 구조물임과 동시에 개개인이 나뉘므로 적의를 느끼고, 낮설고 냉혹하고 답답하게 체험하고 있는 사회적 정황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므로 한 작품의 내용은 그 작품이 생성된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연관지어져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청산별곡」은 민요성이 짙은 작품이므로 당시의 민중들이 겪은 사회 역사적 체험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산별곡」에 대한 사회 배경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이 노래의 내용과 상징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리라 본다.

II. 본 론

1. '새'와 시대 상황

「청산별곡」을 현실도피와 체념의 노래로 보는 견해는 많은 편이다. 이는 본 가요에 나오는 '청산에 산다', '운다',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 '바다에 산다', '술' 등등의 어휘나 구가 주는 어감이 어둡고 건강하지 못한데서 일차적으로 이노래가 현실도피의 사상과 체념의 정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리라 본다. 사실 「청산별곡」의 화자는 청산을 잠시나마 현실도피의 장소로 생각했을지는 모른다. 식량으로서는 만족할만한 것이 못 되는 머루나 다래를 따 먹으면서까지 "청산에 살어리랴다"라고 노래했으니 말이다. 실제로 고려후기 백성들이 나무 열매나 풀잎으로 어렵게 연명했다는 기록은 흔하게 찾을 수 있다.

有採木實草葉而食者 民之凋弊 莫甚此時¹⁾

1) 고려사 권28 충렬왕 원년

그러나 유족하지 못한 이러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 대개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나 열망하는 이상적인 삶의조건도 절대로 아니다. 이는 현실에 불만이 많으나 대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아래 처해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는 삶의 극한적인 양상일 뿐이다. 더구나 ‘청산’은 일반 민중들에게는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낙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아닌데도²⁾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로 노래하였으니, 이는 화자가 청산의 삶을 진정으로 회귀하면서 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김승찬님은 「청산별곡」의 제1연은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수탈권 밖으로 나아가 안주하고픈 강렬하고도 절실한 욕망을 영탄적 정조로 절규하고 있다고 봄이 좋을 듯하다”라고 설파했다.³⁾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밑위랑 다래랑 먹고 靑山에 살어리랏다 (제 1연)

무위자연을 표방하여 소위 ‘무하유지향’을 낙원으로 설정한 장자 같은 이나, 이를 즐겨 따르는 방외인사 외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 자유 의지에 따라 고립무원의 폐쇄적 공간인 청산에서 하찮은 머루나 다래와 같은 산과 일을 따먹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 곳을 낙원으로 생각하며, 또 즐거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고독감을 절감한 나머지 “오리도 가리도 없는 바쁘란 또 엇디 호리라”로 自歎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백성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머루나 다래를 따먹으면서 비참하게 꾸러가는 청산에서의 생활일지라도, 심한 억압이 가해져 생사를 전혀 예견할 수 없게 하는 고난스러운 삶의 자리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래를 자탄조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노래에서의 화자는 삶의 현장인 세속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悲願이긴 하지만 청산에 묻혀 초근목피로, 바다에서 해조류 등을 채취하여 궁색하게 사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스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산별곡」 생성 당시 삶의 현장이 얼마나 극렬한

2) 김쾌덕, 「청산별곡」에서의 청산의 의미, 부산한글 4호(부산: 한글학회 부산지회, 1985), pp. 69~88.

3) 김승찬, 청산별곡론, 한국문학사상론 (부산: 제일문화사, 1983), p. 242.

고통을 주는 터전이었던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는 증좌이다.

고려시대 관리들의 가렴주구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심했다. 「사리화」 등으로 속가나 고려 지식인들의 한시 속에 그 실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⁴⁾ 특히 고종 때는 몽고병이 침략해 오는 것을 도리어 좋아했으며,⁵⁾ 더러는 몽고병이 고려 전토를 유린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 주어 주현을 쉽게 공략하게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도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⁶⁾

이와 같은 형편이었으니 鄉里에 문혀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할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이래서 유민이 속출했다. 이런 유민 현상의 비참함은 고려 후기에 창작된 많은 한시문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 주요 소재이기도 하다.⁷⁾ 농민이 경작하던 토지를 버리고 유민이 되는 경향은 12세기 초의 예종 때부터 이미 나타났다. 개경에서 가까운 경기나 서해도 지방에서 특히 많았는데, 이는 중앙 귀족들을 위한 곡물징수나 부역이 타지역보다 심했기 때문이다. 관리들의 苛斂誅求와 수탈이 극심하여 자식을 팔아 조세를 납부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있었다.⁸⁾

「청산별곡」도 이러한 극한 상황과 그에 따른 정착할 수 없는 처지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⁹⁾, 이런 사정이 이 노래의 1연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향리에 안주하여 농사를 짓고 살 수 없는 딱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나쁜 삶의 조건을 제공해 주는 청산이지만 일시적으로 도피의 장소로 생각되고, 이래서 청산이 삶의 장으로 마음 속에서나마 설정된 것이다.

4) 이규보의 시문 「聞郡守數人以贖被罪二首」나 「代農夫吟二首」는 고려의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다. 그런가하면 고려사절요 권20 충렬왕 8년 정월 조에 “時人語曰 如今邑宰紆朱紱 盡是生靈血染成”이라는 말도 이런 사정을 짐작케 한다.

5) 고려사 권24 고종 43년 조. 여기에 ‘是月 以夢兵 停發六道宣旨使 用別監 時奉使者 剝民本橫斂 以罔恩寵 民甚苦之 反喜夢兵之至’라 적혀 있음.

6) 남도영, 농민·천민의 난, 한국사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3), p. 176 참조.

7) 이곡의 『稼停集』을 보면 이런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그의 시 「清明後出 城南望西山曠」에서 ‘농민들이 배가 고파 서로 잡아 먹는다’(民今食是何心)라고 읊고 있다.

8) 고려사 권31 충렬왕 22년 1월 조에 조세 때문에 자식을 판 자는 관에서 贖還해 주라는 내용(貧民因租稅而鬻子者 官贖還之)이 있으며, 崔鶯詩편 중에는 길에서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은 (道路多餓殍)을 노래한 것도 있음.

9) 시경의 위풍 「碩鼠」도 「청산별곡」과 같이 학정과 誅求에 못이겨 삶의 현장을 떠나 낙토로 가고자 함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탐관오리는 큰 쥐에 비유되고 있다.(碩鼠碩鼠無食我黍 三歲貫女 莫我肯顧 逝將去女 滴彼樂土 樂土樂土 爰得我所……)

다음으로 둘째 연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연은 앞뒤의 의미가 상치되고 있어 문제가 되어 온 연이다.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고너러 우니노라(제 2연)

이 부분을 ‘올어라 올어라 새여/자고 일어나 올어라 새여/너보다도 시름이 많은 나도/자고 일어나 우니노라’와 같이 일반적 해석을 하면 전체 맥락상 모순이 된다. 즉 이 2연은 ‘너보다도 근심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그러니 나보다 근심 걱정이 적은 너도 자고 일어나 올어라’라는 내용의 구문을 도치시켜 노래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의 내용은 상식적 보편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된다. ‘근심 걱정이 너보다도 많은 내가 우니까 근심 걱정이 나보다도 적은 너도 올어라’고 하는 식의 표현은 있을 수가 없다. 문장의 형식구조로는 모순이 없지만 내용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성립이 안된다.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 연결이 창작 당시 歌唱者들에게 모순으로 생각되었을리는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논리적으로 모순된 문장을 가요의 내용으로 삼아 노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모순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가요 발생 당시와 조선 조에 들어서서 문헌에 정착될 때는 그것이 내용상으로 전혀 모순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겉으로 모순으로 보이는 이 연의 내용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필자는 이 연에 나오는 ‘새’의 상징적 의미를 옹계 파악할 수 있다면 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새’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하다. 새에 따라서는 천상을 향하여 상승, 고양되는 인간정신을 상징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는 반면에 교활한 삶의 자세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비둘기는 순진무구를 표상하나 자고와 같은 새는 간교함을 상징함이 그 예이다.¹⁰⁾ 현재도 말이 많은 경우 ‘참새처럼 조잘거린다’라 표현하는 것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방황하는 사람을 철새로 나타내기도 하는 것은 새가 부정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10)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philosophical library Inc, 1962), p. 27.

상관물임과 동시에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상징물로 작용함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 또 ‘새오리 장가가면 현오리 나도 한다’나 ‘새 까먹는 소리’ 등의 속담이 보여주듯이 새는 부화뇌동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초기에 새가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작품에 차용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길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연구도 별반 없이 지금의 상징성과 동일한지의 여부도 가리기 어렵다. 다만 뜻이 급변하지 않는 언어의 속성으로 보아서 지금의 경우와 상징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된다.

고려 속가 「만전춘별사」나 「사리화」 등에 오리나 참새가 나온다. 「만전춘별사」의 오리가 바람둥이 남자, 즉 노류장화를 찾아드는 탕아를 상징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¹⁾ 「사리화」에 나오는 참새는 다 지은 곡식을 쪼아먹는 해로운 새, 곧 탐관오리에 비유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려 속가에 등장하는 새는 작중화자와는 본질적으로 대치되며, 또 대부분 부정적 상관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산별곡」에 등장하는 새의 상징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연의 새를 작자의 분신으로 봄이 일반적이었다.¹²⁾ 그러나 「청산별곡」이 민요적 속성이 짙은 노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를 작자의 분신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상징관념이 배어 있는 대상으로 파악함이 옳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민요와 같이 노래에는 지나친 고도의 상징 수법과 문학적 의장이 차용되는 예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산별곡」의 새는 「만전춘별사」의 오리처럼 탕아적 변질적 행동을 자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정적 관념을 표상하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려 후기의 어려웠던 상황에 처해서도 교묘히 행동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에 해악을 끼친 무리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간신배들을 나타낸 것

11) 시베리아 지방에서도 남자를 숫오리에 비유하기도 했으나, 그 곳에서는 탕아로 지적되지는 않았다.

V. Dioszegi and M. Happal, Shamanism in Siberia, [최길성,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서울: 민음사, 1988), p. 520] 참조.

12)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서울: 신구문화사, 1977), p. 107.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새’를 정병욱님과 같은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음.

으로 볼 수 있겠다. 충렬왕 때에만 해도 원에 아부하여 본국 고려를 괴롭힌 오잠 김원상 등 간신배들의 무리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2연은 화자가 ‘새’로 비유된 간신배와 변절자 무리들에게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끝없이 울면서 반성하라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도치된 내용을 문맥에 부합되도록 바로 잡아보면 ‘너보다도(국가나 민족을 위하여) 근심 걱정을 많이 한(지금은 후회없이 울지 않아도 될 몇몇한) 나는(그래도) 늘상 괴로워 울고 있는데, (나보다 근심 걱정을 적게했던 너는 지금 나 보다 더 많이 누우치고 많이 울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도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그래서 너의 몇몇치 못한 죄과를 조금이라도 씻어라 라는 문의를 깔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2연도 1연과 같이 현실에 대한 근심과 애착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연에서도 새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데, 새와 관련지어 이 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던새 가던새 본다 물아래 가던새 본다
 잉무든 장굴란 가지고 물아래 가던새 본다.(제 3연)

3연은 여러 면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특히 “잉무든 장굴란 가지고”에서 ‘가지고’의 주체가 우선 문제가 되며, 또 ‘잉무든’, ‘물아래’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종결어미 ‘본다’의 처리도 각인 각색이다.

필자는 ‘가지고’의 주체는 話者が 아니고 ‘새’로 보고자 하며, ‘잉무든’은 이가 무던으로 보고자 한다. ‘잉무든’을 ‘이끼가 낀’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인 상식에 배치되는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 이끼는 바위 등에 끼이지 쟁기 등 연모에는 끼이지 않기 때문이다. 연모에는 녹이 슬거나, 녹이 슬어 이가 삭거나 무디어질 경우는 있다. 또한 3연의 ‘물아래’는 청산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속세로 해석하고자 한다.¹³⁾ 그리고 ‘본다’를 ‘보다’의 현재 서술형

13) 정병욱, 위의 책, p. 107. 여기서 정병욱님은 ‘물아래’를 ‘평원지대’로 보아, “이 ‘물아래’는 오늘날도 산간지방에서는 아직도 쓰이고 있는 말로서 ‘평원지대’라는 뜻이다. ‘평원지대’라면 쌀과 보리가 나는 곳, 즉 세속의 세계를 뜻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종결어미로 설명하는 분도 있으나,¹⁴⁾ 일반적인 견해의 의문형 종결어미로 봄이 좋을 것 같다.

이 연에서 ‘새’는 작중화자와는 달리, ‘물아래’로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산이 머무나 다래같은 것으로 연명해야 하는, 화자와 유사한 처지의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라면 청산과 대립되는 ‘물아래’ 곧 世俗은 시련이 총첩되며 삶을 왜곡시키는 절대비극의 장소이다. 그러나 ‘새’에 비유된 무리들에게는 도리어 富가 약속되는, 욕망실현의 장소이기도 하다.

원래 시가에서 너무 혼하거나 너무 동떨어진 의미를 가진 어휘는 작자의 의도를 굴절시킨다고 했다.¹⁵⁾ 만약 ‘물아래’를 물밑으로 해석한다면 전체의 의미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 되어 전체 의미 구조에 무리를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정벽옥님의 주장처럼 ‘평원지대’로 간주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탕아 변절자인 ‘새’가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런 무리들에게 羨望의 대상이된 ‘물아래’, 곧 평원 지대란 그들이 온갖 비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 준 막강한 지배세력이 존재하는 곳이거나 혹은 권력의 현장을 암시할 수 있다고 본다. ‘새’로 비유된 무리들은 일신의 영예를 위하여 그와 같은 세력권에 빌붙었고, 3연은 그런 사실을 두고 읊은 것이라 하겠다.

원래 사회가 혼란할 수록 소인배들은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기회포착을 노리며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고려가 원의 지배 아래 들어 혼란스러웠던 당시, 앞에서 언급된 오잠 김원상 등의 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도 더러는 자신의 안락과 영달을 위하여 자진하여 자식을 元에 宦者로 보내려고 하는 등 반윤리적 행위를 했다. 즉 “잔인하고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서로 부러워하고 본받아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去勢하고 형이 아우를 거세하였으며, 또한 강폭한 자는 조금이라도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

14) 서수생, 한국시가 연구 (대구: 형설출판사, 1970), p. 112.

김형규, 고가요주석 (서울: 일조각, 1968), p. 312.

15) Graham Hough, An Essay on Criticism, [고정자, 비평론(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2), p. 144] 참조.

으면 즉시 스스로 거세한 까닭에 수십 년에 걸쳐 거세된 무리가 매우 많았다”¹⁶⁾고 한 기록은 소인배들의 작태를 잘 보여 주는 기록이다.

위의 것은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일부 무리들이 일신의 영화만을 위하여 세력권에 빌붙고, 극랄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음을 잘 말해 준다. 이런 사실로 이루어 볼 때 이 3연은 현실의 부당한 이익에 눈이 먼 무리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노래하고 있으며, ‘물아래’는 청산과 대립되는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그런 무리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사회현장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화자는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세속에 대한 일시적 반동심리로, 원시적인 삶에 대한 일종의 회귀의지로 청산을 잠시나마 그리워할망정 청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렵긴 하나 현실에서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비하여, ‘새’에 비유된 무리들은 파국적이고도 불행한 현실을 더욱 분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갖가지 술수로 권력에 빌붙으면서 자신에게 이롭게만 행동한다. 따라서 束手無策인 화자는 새들의 이런 행위에 비분강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런 곳으로 갔느냐고 茫然自失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청산별곡」 1, 2, 3연은 대체로 동질적인 의미단락으로 묶을 수 있다. 1연에서 화자는 고난스러우나 세속에서 삶을 영위하겠다는 강한 현실집착의 의지를 드러내고, 2·3연에서는 그러한 현실 내부에서 나라를 위하여 鞠躬盡力하기는 커녕 정황을 더욱 어지럽히며 부정적인 행위를 일삼는 무리를 질타하고, 삶의 고통을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 수법에 의하여 화자의 고통한 심정과 그가 처한 상황의 비극성은 그 무게에 있어서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4연과 5연에서는 이 점이 더욱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강한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

2. 비극적 상황과 절대고독

‘청산’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춘 낙원이 될 수 없음은 그 곳이 머루나 다래를 따 먹으면서 겨우 연명해야 하는 곳, 즉 초근

16) 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2년 조. 여기에 “於是 殘忍僥倖之徒 轉相 蒸劾 父宮其子 兄宮其弟 又其強蒸者 小有 憤怨 輒自 割勢 故不數十年間 刀鋸之輩甚多”라 적혀 있음.

복되게 삶을 이어가야 하는 비참한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자에게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외적 여건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청산을 심리적으로도 고독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더령궁해야 나즈란 다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엽슨 바드란 또 엇디 호리라 (제 4연)

화자가 운둔에 익숙한 隱者이거나 고독의 철리가 몸에 밴 賢者여서 청산의 생활을 自足스럽게 받아 들이다면 위의 4연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청산별곡」의 화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현실 생활뿐 아니라 정신적 고독에 더욱 못견디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낮의 시간뿐 아니라, 낮의 시간도 화자에게는 고독한 시간이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이렇듯 더령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서나, “엽슨 또 어찌 하리까”라 하면서 ‘또’를 삽입시킨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화자에게 낮도 고독한 시간임은 분명하다. 낮과 밤 모두가 작중 화자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고독의 순간임을 드러내는 진술이 된다. 이것은 「청산별곡」의 화자가 ‘청산’을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터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 줌으로써 동시에 ‘청산’의 생활 그 자체에도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 주는 것일 수 있다.

‘낮’과 ‘밤’은 현실을 기피하는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자신을 남과 격리시켜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시간과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밤은 마음이 거의 외계로부터 차단되어 그 자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만 만들어 내게 하는 시간이다. 인간이 정신의 계시를 받는 것은 낮보다는 밤이 훨씬 활발하게 되고 내향적이 되는 밤의 편이 쉽다고 했다.¹⁷⁾ 그런데도 화자는 ‘청산’에 은거하여 느끼는 ‘밤’의 심정을 고독한 것으로만 노래하고 있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낮보다 성스러운 밤의 긍정적인 의미를 화자는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 폐쇄적인 고독의 시간으로만 관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집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4연의 밤은 한 개인이 겪는 고독의 밤뿐만 아니라, 고려 민중들의 삶을 억압하는 열악한 현실을 상징한 시간일 가능성을

17) Calvin S. Hall and Vernon J. Nordby,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이용호, 융심리학입문 (서울: 백조출판사, 1980), p. 131].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낮 또한 밤과 마찬가지로 외환과 내란,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이어진 ‘어려운 삶의 시기’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의 화자는 낮과 밤을 모두 고독하고 지겨운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연애 와서 ‘청산’이 생활하기에 부적절한 곳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로써 화자는 고독한 가운데 삶의 철리를 탐구하는 운둔자이거나 ‘청산’에서의 고독을 수양의 도구로 삼을 줄 아는 고답적 지식인이 아니라,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부대끼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삶의 방도를 찾을 줄 몰라 방황하는 麗代의 민중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민중이 열악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청산’에서 살고 싶으나 정작 ‘청산’에서의 생활은 더욱 고독하고 두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노래부른 부분이 4연이라 보아진다. 이 점은 5연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세차게 극대화되고 구체화된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제 5연)

「청산별곡」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다 그러하지만, 5연은 다른 어떤 연보다도 아픈 시대적·사회적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어디에다 던지는 돌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맞추는 돌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돌에 채수없게 맞아서 울어야 하는 불운한 사람,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그러하면서도 삶을 영위해 가야 했던 사회가 고려 후기사회였던 것이다.

보편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체계가 허물어진 혼란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행복을 얻기는 어렵다. 고려 후기는 그 좋은 보기가 된다. 고려의 역사·사회적 상황은 고려 백성들의 삶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두드러지게 작용했으며, 그 결과 그들을 더욱 비극적인 정황으로 떨어지게 했다. 사실 고려 후기는 원으로 強徵당하는 貢女와 闍人 문제 등으로 민심이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이 원하는 삶의 질과 조건이 파괴됐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표출된 것이 고려 백성들의 당했던 불가항력적인 이별의 고통이었다. 이별이 고려 속가의 중심 모티브로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貢女와 闍人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산별곡」의 4연과 5연의

내용을 규정해 보기로 하겠다.

원종 15년에는 元이 새로 병합된 남송의 양양촌(호북) 지방 生卷軍人들을 위하여 고려 여인 140명을 요청하였는데, 고려에서는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閭卷의 독신녀·역적의 처·승려의 딸 등을 가까스로 찾아내어 그 수를 채웠다. 그 결과 민원이 들끓고 곡성이 하늘에 닿아 사람마다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¹⁸⁾ 이와같은 공녀징발은 한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그 수도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충렬왕 원년 11월에는 신년을 축하하면서 원에 처녀 십명을 바친 일이 있었다.

十一月遣僉議贊成事俞千遇如元賀正 告改官制 獻處女十八¹⁹⁾

그 뒤 동왕 2년 3월에 원에 귀부한 군사 500명에게 처를 마련해 주고자 ‘寡婦處女推考別監’을 두어 과부와 처녀를 수색, 징발하고 이러한 부녀 징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33년에는 13세에서 16세까지의 여자들에 대하여 혼인을 통제하기까지 했다.

己巳有旨良家處女先告官然後嫁之 違者罪之 因命許拱等選童女²⁰⁾

더구나 이런 공녀 차출의 대상은 일반 서민계층의 부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층의 정혼한 딸에까지 이르렀다.²¹⁾

사정이 이러했으니 당시 부모 자식간의 이별, 남녀 연인들의 이별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강제로 이루어졌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고려 시가의 제재로 이별이 곧잘 채택되고 있음은 이러한 강요된 이별에서 비

18)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 동국문화사, 1961), p. 693.

또 충숙왕 때 홍수와 가뭄이 잇달아 발생하여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홍수와 가뭄의 원인을 공녀 강제차출로 인하여 생긴 백성들의 원한 때문이라 하기도 했는데, 이로써도 그 당시 공녀차출은 백성들의 원성을 크게 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절요 권25 충숙왕 4년 4월 조)

19)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11년 조.

20) 고려사 권30 충렬왕 33년 12월 조.

21) 고려사 권27 13년 2월 조에 達魯花赤 脫朶兒가 姿色을 갖춘 김연의 딸을 그의 자부로 삼았는데, 그 때 김연의 집에서는 이미 豫孿를 들이고 있었다.

롯데 비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다. 이외에도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 후기에는 宦者供出문제, 탐관오리의 발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제반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승효과를 유발시켜 민중들에도탄에 빠지게 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아래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지난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추량전대 이 연에 나오는 ‘돌’은 우리가 일상 보는 단순한 자연물로서의 가시적인 돌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화자나 고려 백성들에게 유형 무형으로 가해진 억압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실감, 즉 가족의 이산·재산의 탈취·연인의 빼앗김 등과 같이 바람직한 삶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의 총화로 파악함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²²⁾ 백성들에게 가해진 피해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데까지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돌’은 이들이 받은 모든 억압과 폐해를 포괄적이라고도 복합적으로 나타낸 상징물이 되겠다.²³⁾

어쨌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도 여러 양상의 위해물을 상징하는 ‘돌’에 맞아서 울어야 하는 화자는 죄없이 죽거나 고생하는 민중, 빼앗기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극한상황 속의 고려 민중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청산별곡」의 5연은 이처럼 분란하고 가혹스러운 현실 속에서 돌로 상징된 고통을 받으며 산고려 민중들의 위기적 상황과 급박한 의식을 읊고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4연과 5연은 시대상황에 의해 惹起된 삶의 여러

22) 원래 돌은 신뢰성과 견고성의 표징이며, 귀신을 쫓는 영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 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되어 삶의 한걸스러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악되기도 했다.

J. E. Cirlot, A Dictionary of Symbols (Philosophical Library Inc, 1962), p. 299.

M.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이은봉, 종교형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5), p. 238] 참조.

Carl, G. Jung, Man and His Symbols [조승국, 인간과 상징 (서울: 범조사, 1982, p. 277].

23) 다음 분들도 필자와 유사한 의견을 갖고 있다.

정병욱의 1명, 고전의 바다 (서울: 현암사, 1980), p. 180.

전규태, 한국문학의 통시적 연구 (서울: 지문사, 1981), p. 200.

정상관, 중세시문학사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6), p. 145.

장애요소로 말미암아 고독해 하는 화자의 비극적인 모습을 그린 단락으로 파악된다. 시대상황으로 볼 때 아픈 상실과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짐짓 내심과는 달리 ‘청산’을 찾고 ‘바다’를 찾는 척하면서도 현실적인 삶에 집착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하면 더 할수록 화자의 고독과 아픔은 역으로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3. 현실 인식과 술

「청산별곡」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6, 7, 8연은 화자가 현실에 대하여 갖는 애착심과 아울러 현실이 화자를 붙잡아 끄는 誘引要素인 ‘술’을 노래하고 있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라래 살어리랏다
 나머지 구조개랑먹고 바라래 살어리랏다 (제 6연)

1연에 등장했던 ‘청산’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삶의 한 터전으로 ‘바다’를 설정하고 있다. 이 둘이 시사하는 바는 비슷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의 ‘바다’도 화자가 지향해야 할 현실적 장소로 상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고난스럽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차라리 바다로 나아가 삶의 방도를 찾아야 하겠다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화자가 의도하는 진정한 뜻이 현실을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으나 고난스러운 환경이 화자로 하여금 짐짓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전반부의 1연과 이 6연은 유사한 의미가 반복되는 연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 7연을 보자.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집대에 올라서 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제 7연)

이 연은 ‘에정지로 가다가 사슴이 집대에 올라서 奚琴을 켜는 것을 듣노라’로 간략하게 풀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에정지’와 사슴이 집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행위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다. ‘에정지’는 고 문헌에도

그 용례가 없는 어휘이기 때문에 의미의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학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각각각색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부업’, 즉 ‘정지’로 해석할 것 같으면 다음 구절과 모순이 된다. 즉 둘째 행인 “사스미 짚대에…”가 무슨 의미든 간에, 화자가 어느 곳에 서서 그것을 듣고 노래한 내용임에는 분명하다. 무엇을 듣고 노래했다면 이는 집안에 위치한 생활공간으로 보기는 힘들다. 고려시대 일반 서민들의 가옥구조가 어떻게 꾸며져 있었는지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그 때의 가옥구조가 서민의 전통가옥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할 것 같으면 화자가 집안의 어떤 장소에서 집안의 부업으로 가는 도중에 밖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것이 누가 어느 곳에서 켜는 무슨 소리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라고 하면서 해금을 켜는 주체와 장소를 정확히 지적하여 노래로 읊은 것이다. 이 구절로써 미루어 보건대 화자는 그가 읊은 내용을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이는 화자가 집 밖의 어떤 장소로 가는 도중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에정지’는 부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특별한 공간, 곧 제 3연에 나오는 ‘물아래’에 대응될 수 있는 의미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듯 싶다.

이 노래의 3연에서도 ‘새’로 표상되는 모리배나 변절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물아래’로 가는 행위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연의 ‘가다’ 동사도 화자가 자기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장소로 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간다는 것은 막연한 무목적의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살려는 장소가 ‘청산’이나 ‘바다’였던 것처럼 7연에서 가는 장소도 새로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생활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가서 사는 장소로 ‘청산’과 ‘바다’가 나오고 또 ‘물아래’가 나오는데 폐쇄된 집안의 부업을 지향공간으로 설정하여 나타낸 것은 절맞지 않는다. 따라서 ‘에정지’는 특수한 지명이거나 당시에 관용되었던 어떤 생활공간으로서 ‘청산’과 ‘바다’, ‘물아래’와 같은 차원의 공간으로 화자에게 인식된 장소다. 김상억님은 ‘에정지 가는’을 통하여 “증세적인 격리인식과 달관”을

본다고 했는데,²⁴⁾ 의미심장한 해명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물아래’가 새들이 찾는 삶의 현장이듯이 이 ‘예정지’도 화자가 느끼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라도 망각할 수 있게하거나 拂拭시켜 줄 수 있는, ‘바다’로 가는 도중의 한 생활 공간을 나타낸 것으로서, 화자는 현실의 아픔을 간직한 채 그러한 ‘예정지’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슴이 침대에 올라서 奚琴을 허거를 드로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많은 견해가 제기되었다. 양주동님은 “아마 卑猥한 장면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음사, 혹은 嘲世傲人の 해학어인가”라 했으며²⁵⁾ 김형규님은 ‘사슴’을 ‘사람’의 오각으로 처리하여 이 구절을 해석했다.²⁶⁾ 그 외에 김완진님은 “사슴으로 분장한 이가 높은 장대에 올라 해금을 켜며 뭇구경꾼들의 환성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 하여 극적 상황을 강조했다.²⁷⁾ 그런가 하면 김종우님은 ‘짐’은 荷物이며 대는 ‘터’의 뜻으로 ‘臺’를 말하는 것이라 전제한 뒤, 따라서 이 연은 “부녀가 집을 떠날 때 아마 해금을 타는 각설이가 문밖에 있는 조금 높직한 터에 올라서 구걸의 사실과 해금을 演行하는 것을 보고서 가창한 것”으로 상상된다고 하였다.²⁸⁾

그런데 정병욱님은 “사슴이 침대 위에 올라서서 해금을 켜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눈 앞에 전개되었고, 컷속에 해금소리가 들려왔다는 사실은 곧 기적을 뜻하는 것이다”라 하면서 이 구절을 고려 시대에 널리 쓰인 관용구라 지적했다.²⁹⁾ 「청산별곡」이 민요적 속성을 지니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요에 관용구가 빈번히 차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이 당시의 어떤 특수한 한계상황을 나타내는데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결국 「청산별곡」에도 이런 맥락에서 이 구절이 사용되었다고 봄이 옳지 않을까 한다. 그런 상황이란 다름아니라 고려의 군소 간신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내란과 외환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민생고는 날로 더해 가던 부조리한 사회상황 전반에 걸친 것이 될 것이다.

24) 김상억, 고려가사 연구 II, 청주대논문집 6집 (청주: 국제출판사, 1967), p. 50.

25) 양주동, 여요진주 (서울: 율유문화사, 1971), pp. 327~328.

26) 김형규, 앞의 책, p. 192.

27) 김완진, 청산별곡의 ‘사슴’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 (서울: 탑출판사, 1982), p. 37.

28) 김종우, 중고문학의 현실성 고찰, 향가문학연구 (서울: 삼우사, 1976), p. 292.

29) 정병욱, 앞의 책, p. 111.

따라서 정병욱님이 이 구절을 당대의 관용구로 본 점은 적절한 접근이라 하겠다. 그러나 기적을 의미하는 관용구가 아니라 부조리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파생된 상투어구로 보고자 한다.

고려시대에는 시대상황을 풍자하고 예언한 참요가 유달리 많았다. 예를 들면 「普賢利謠」, 「瓠木謠」, 「萬壽山謠」, 「墨冊謠」, 「阿也謠」, 「牛大吼謠」 등이 그것이다.³⁰⁾ 「청산별곡」도 고려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아래서 가창되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속에 시류를 풍성하거나 시세를 비난하는 말이 차용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원래 언어현상 가운데는 의미의 연결로서만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의미는 말의 총체가 아니고 말이 만드는 화맥(context)의 유기적 총체이므로 그렇다.³¹⁾ 또 이런 말일수록 어떤 특수계층이 특수한 상황을 諷刺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금방 그것을 알아도 그 언어권 밖에 있는 사람은 논리적 연결을 짓지 못하여 의미 파악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의미가 체험적 요소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한 시대 안에서도 체형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³²⁾ 그래서 흔히 상투적인 이런 용어를 노래에 사용함으로써 어떤 계층이 그들의 억압된 욕구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일이 빈번히 있는 것이다.³³⁾ 현재 이런 목적으로 일상대화에서 사용하는 관습적인 말들로는 ① 원승이 달밤에 체조하네 ② X통소 불지 말라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①과 ②는 어느 것이나 실제의 상황일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문맥으로는 의미상통하지 않는 문장구조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강한 적개심이나 조롱을 나타낼 때 현실적으로 자주 쓰이는 말들이다. 「청산별

30) 普賢利謠：何處是普賢利 隨此盡同力殺(의종대)

瓠木謠：瓠之木枝切之一水鐮 陋台木枝切之一水鐮 去去去夸遠而去夸 彼山之顛遠而去夸 霜之不來 磨鍊刈麻去夸(고종대)

萬壽山謠：萬壽山 烟霧弊(충렬왕대)

墨冊謠：用綜布作都目 正事眞墨冊 我欲油 今年麻子少 義不得(충숙왕대)

阿也謠：阿也麻古之那 從今去何時來(충혜왕대)

牛大吼謠：牛大吼龍離海 淺水弄清波(공민왕대)

31) Sartre, Jean Paul, Situation V01 II (Q'n' est-ce que La Littérature)

[김봉구,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1972), p. 63]

32) 최재서, 문학원론 (서울: 춘조사, 1962), p. 103.

33) Malinowski, Sex and Repression in Savage Society

[한완상, 미개사회의 성과억압 (서울: 삼성출판사, 1982), p. 116]

곡'의 이 구절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리라 본다. 어쨌든 「청산별곡」에 쓰인 “사스미 깊대예……”도 이런 상투적인 관용구로서 조롱이나 비난의 뜻이 내포된 것이라 보겠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조리한 세상의 어수선한 세태를 노래한 앞부분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화자는 ‘예정지’로 가다가 현실의 참담함이나 역겨움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보고 들어서 현실을 재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실파악도 화자의 마음 속에 처음부터 굳게 자리잡고 있었던 현실집착의 마음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 보기 싫고, 듣기 싫다 해서 세속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이다. 도리어 세속에 대한 애착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 마련이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8연에서 고통만 안겨주고, 체념만 남게 하는 현실적 삶의 현장을 버릴 수 없다면서 화자는 자기변명을 늘어 놓고 있다. 환언하면, 「청산별곡」의 8연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화자를 짓누르는데도 단호하게 현실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도하는 연이며, 자아와 현실세계의 상충과 멀어짐을 ‘술’이라는 중간매체를 통하여 수습하는 내용이다.

가다니 박부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잠스와니 내엇디 흐리잇고 (제 8연)

‘청산’에나마 들어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삶을 택하고 싶을 정도로 화자에게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모든 ‘새’(변절자, 모리배)들은 자신의 이익을 찾아서 ‘블아래’로 날아간다. 자신의 삶도 단절의 아픔과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현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화자는 ‘술’을 가져다 놓고 이것으로 생의 아픔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삶을 떠나서 잊기 위해 ‘청산’이나 ‘바다’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괴로운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는 ‘술’에 의하여 완전히 霧散된 것처럼 읊고 있다. 이는 신라의 처용왕이 아내를 범하고 있는 疫神을 처지할 수 없는 자신의 행위와 심정을 “아사눌엇디흐리잇고”로 열버무리면서 합리화시킨 것처럼 여기의 화자도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잠스와니 내 엇디흐리잇고”로써 바다로 가지않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시 고려의 민중은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농토까지 빼앗겨 유리결식하거나 ‘청산’이나 ‘바닷가’에 흩어져 어렵게 살아야 했다. 이러 부조리한 현실을 화자는 외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자의 마음 한 귀퉁이에는 체념이나 반작용으로 인하여 현실을 도피하여 ‘청산’이나 ‘바다’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 속에서 현실 쪽을 택하기로 결심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이 8연이다. 예컨대 정신의 가능성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까지 할 수 있는³⁴⁾ ‘술’이라는 誘引要素를 통하여 葛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은 1연에서 은연중 드러낸 현실집착 의중을 보다 강하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출시킨 연이다. 이 점은 여기에 등장되고 있는 ‘술’의 역할과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뒷받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술’이란 의기를 진작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면, 사려깊지 않은 행동을 촉발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놀이에서 흥을 돋우는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우리의 선인들은 吟風弄月하거나 悠悠自適할 때에는 반드시 술을 가까이 했다. 이와 같은 예는 많은 시인묵객들 한테서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음은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일반백성들에게 ‘술’이란 멋으로 애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실 생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흔히 노동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노동의 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로와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고, 생활의 의욕을 새롭게 충전시킬 수 있다. 바술나르가 술은 애정을 마비시키는 물질이지만 상상력의 세계에서 보면 가장 동물적인 생명의 상태, 즉 불과 같은 생명감의 정점이라 한 것과³⁵⁾ 연결시켜 보면 이 점을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고려시대 민중에게 허여된 현실을 반가치적인 삶의 場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과 ‘바다’가 세속과 치환될 수 있는 삶의 장으로 등장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어지러운 삶의 현장에 오히려 애착과 의욕을 느낀다. 원래 상황이 부담지우는 무게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생성된 작품에 나타나는 정신은 도리어 현실에 완강하게 맞서

34) Gaston Bachelard, *La psychanalyse Gu Feu* [김현, 불의 정신분석 (서울: 삼중당, 1977), p. 109]

35) Gaston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Libraire Jose Corti, 1973), p. 138.

개조하려는 방향으로 경도되는데, 「청산별곡」의 화자가 갖는 의식과 취하는 행동은 이와 유사한 원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화자는 ‘술’을 통해 생명감과 위안을 맛보면서 현실적인 삶속에서 옹골차게 살아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롱 곶 누르기 밭과 잡스와니 내 엇디 ㅎ리잇고’라 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 몸담고자 했고, 비애와 실의 그리고 고독만 늘 함께 하는 ‘청산’과 ‘바다’에서의 삶을 결연히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산별곡」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하여 살려는 소극적인 의지를 읊은 노래가 아니라 현실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읊은 노래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청산별곡」의 이러한 현실집착은 그대로 고려 후기의 고난스러웠던 민중의 정서와 사상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민요는 한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이 그들 나름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속한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고 대응해간 모습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청산별곡」의 내용과 주요 핵심어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관하여 소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다음에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청산별곡」은 비애와 절망으로 일관된 좌절과 체념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집착의 의지가 강하게 배어 있는 속가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당대의 부조리하고도 강포한 사회현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극적 정서가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크게 세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 2, 3연으로 묶어질 수 있는 첫번째 단락에서는 작중 화자의 강한 현실집착과 모리배, 변절자 등의 무리로 상징되고 있는 ‘새’에 대한 풍자와 질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4, 5연이 해당되는 두번째 단락은 열악한 시대 상황에서 연유된 화자의 절대고독과 비극적 정황이 핵심내용이며, 아울러 미래의 바람직한 삶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락인 6, 7, 8연에서는 현실에 착과 誘引要素인 ‘술’은 노래하면서, 현실에 집착하고자 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아울러 ‘새’는 고려사회와 민중들에게 유해요소로 작용하는 모리배, 변절자 등을 상징하며, ‘돌’은 고려 백성들에게 유형 무형으로 가해지는 억압과 관리들의 가렴주구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물아래’는 기회주의자적 성향을 지닌 변절자나 모리배들이 횡행하는 세속, 즉 현실적인 삶의 場을 가리킨다 하겠다. 또 ‘에정지’는 특수한 지명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관용되었던 어떤 생활공간의 명칭으로서 ‘청산’과 ‘바다’, ‘물아래’에 비견될 수 있는 의미차원의 말이라 보아진다.

결국 「청산별곡」은 이별과 침탈, 그리고 부조리한 상황으로 점철된 고려 후기의 시대 정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그 속에 몸담고자 하는 고려 민중들의 강렬한 현실집착 의지와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 짜여져 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